

JB금융그룹, 2018년 상반기 최대 실적 시현

전북은행 전년동기대비 49.4% 증가 562억원

광주은행 전년동기대비 7.9% 증가 907억원

JB우리카페탈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 453억원

JB금융지주 회장 김한은 2018년 상반기 연결 누적기준 1,864억원(지배지분 1,38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9%(지배지분 24.4%) 증가한 실적으로, 2018년 7월 지주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반기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지주 설립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 효과가 본격적 이익 창출에 반영,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안정적인 조달기반과 자산 건전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RoRWA) 중심의 자산포

트폴리오의 효과적인 조정 등이 이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계열사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전북은행(별도기준)이 전년동기대비 49.4% 증가한 562억원의 반기실적을 시현하여 그룹의 높은 이익 증가세를 견인했다.

광주은행 또한 반기기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907억원, 여신전문금융사인 JB우리카페탈은 건실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53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또한 성공적인 현지화로 전년동기대비 54.3% 증가한 78억원을

시현하여 그룹 수익기반 확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고 JB금융지주는 밝혔다.

상반기 지배지분 ROE 11.2% 및 그룹 연결 ROA 0.8%의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비율(비율)은 0.97%, 연체율은 0.89% 및 대손비용율(누적 은행기준)은 0.33%를 기록,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그룹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Ratio)은 연결기준 8.90%(잠정)를 달성, 전분기 대비 0.35%p 및 전년동기대비 0.60%p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2018년 말에는 당초 목표한 수준을 달성하여 자본부담 우려를 해소, 2019년도부터

강화된 자본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은행과의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책결정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전체적인 이익수준이 Level-up되어 그룹의 수익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동시에, '금융의 Digital'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업무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과거 위기상황을 경험하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정부정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업무 수행을 통해 선도적 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7월 수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 월간 실적 '역대 2위'

7월 수출, 518.8억 달러, 전년비 6.2% ↑ ... 주요국 GDP 증가 영향
누적 수출, 3491억 달러, 전년비 6.4% ↑ ... 사상 최대 실적 달성

7월 수출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월간 실적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이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증가요인은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와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해 수출이 518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금액은 21억6000만 달러로 40%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수출 실적은 196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월간 수출 2위 기록이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500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실제로 3월 수출은 513억3000만 달러, 4월 500억6000만 달러, 5월 508억 6000만 달러, 6월 511억8000만 달러, 7월 518억8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2% 늘어난

448억8000만 달러, 무역수지 70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늘어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집계됐다. 누적 일평균 수출도 22억2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 실적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차부품·무선통신 등 10개 수출이 증가했다.

일반기계는 미·중 건설 및 제조업 경기 호조세, 국내 완성차업체 인도 현지공장 설립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석유화학은 유가 및 제품단가 상승, 신규설비 정상 가동 등에 따른 물량 증가로 8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항공유 등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9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의 호조세를 지속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제32회 JB 멘토링 문화체험' 실시

전북은행 직원·대학생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40여명 초청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3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제32회 JB 멘토링 문화체험'을 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고, 전북은행 직원 및 대학생봉사단과 아동 40여명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새롭고 흥미로운 직업체험을 함께 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직업체험관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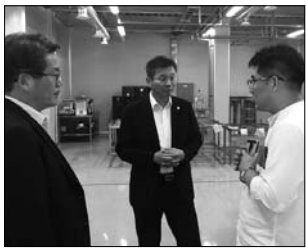
또한,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 부장은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앞으로 도 전북은행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재린 어린이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직접 옷을 디자인해보고 만들기 체험을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동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매해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JB 멘토링 문화체험' 장애인 및 어르신에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한가득 주먹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박은영 홍보실 팀장 박성훈(063-250-7868)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김장근 본부장
거래기업 애로사항 청취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폭염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기업)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자 거래 기업체들을 연일 방문하는 등 열띤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체 방문을 통해 최근 경기 동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아울러 농협은행과의 거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2개월후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유동성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 계획 등을 설명, 관내 사무소장들에게는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올해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내 거래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폭염 대비 물 부족 도서지역 긴급 생수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일 폭염에 신음하는 농업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 생수를 지원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서군산농협(조합장 김기수)과 함께 계속된 폭염으로 식수 부족이 예상되는 어청도와 비안

도 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수나마 공급해 드리고자 2리터 생수 1,800병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긴급 공수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지난달 31일에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명예이장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부안군 동진면 운산마을 경로당

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농가피해 현황을 점검(음료 수박) 등 전달하며 농업인을 위로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영농활동은 물론, 농업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상의, 조선소 재가동 위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건의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지난해 7월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일 군산상의에 따르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및 각 정당에게 현대중공업 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선박 입찰 참가 제한에 대한 유예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양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건으로 인해 2년 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과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시는 현재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히 재가동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농협, 양계농가 돕기 사랑의 계란 나눔행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일 구운계란 380판(30구) 11,400개를 NH농협은행 전주관내 영업점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19개소에 전달하고

이런 '양계농가 돕기 사랑의 계란 나눔 소비자권익 캠페인'에 앞장 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양계농가 돕기 사랑의 계란 나눔 소비자권익 캠페인'에 앞장 서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 지난 4월 16일과 5월 4일에 이어 세 번째 행사를 가졌다.

한편, 유재도 본부장은 "계란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포함한 완전 영양식품이며 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완전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계란 소비자권익 및 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